월남 경영연수 기행

급속성장하는 새로운 기회의 땅

權 海 兆
편집위원

▲ 월남의 전국방장관(가운데)을 방문한 필자(오른쪽)

▲ 하노이대 경영대학원 앞에서의 필자

■ 월남의 변화물결

필자는 지난 4월중 1주간 우리나라 20여개 중견기업인들과 함께 ‘IT기업CEO베트남경영연수’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경영연수는 한국IT기업연합회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월남 수도 하노이에 있는 하노이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월남의 경제동향과 산업발전, 월남의 IT산업현황과 정책 이해, 월남 투자 및 회사설립 법률 가이드, 월남 주식시장의 글로벌 경제브랜드, 월남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투자전략, 월남 IT시장의 이해를 위한 특강과 EVN 텔레콤, 월남 IT최대기업인 FPT, 호아락 IT단지 등 주요 기업현장 방문, 월남 정부 관계자와 업체, 월남 진출 한국 기업대표들과의 비즈니스 상담 등의 다방면 과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필자는 연수 후 몇몇 기업인들과 하노이 근교 세계자연문화재유산에 등재된 하롱베이를 관광하고 월남 제1의 항구도시 다낭과 옛 남부월남 수도였던 호치민胡志明(사이공西貢)시를 방문하여 산업현장을 돌아보고 귀국하였다.

필자는 월남과 인연이 많다. 1969년부터 71년까지 2년 동안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빈딩성 퀴논지역 주월 맹호부대에서 복무한 바 있고 월남과 수교하기 전인 1994년에 주태국대사관 국방무관으로 재직하며 업무관계로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방문하였으며, 2000년과 2006년의 관광에 이어 이번 여행이 다섯번째 방월訪越이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월남에는 변화가 많았다.

월남은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을 추진한 지 불과 20여년 만에 기동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민성처럼 경제성장을 질주하며 이루고 있다. 94년 방문 때는 하노이 비행장의 활주로도 비포장이었다. 지금은 인천공항의 축소판으로 설계되어 최신 시설을 갖추었으며,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도 포장이 잘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노이 시내 호따이호 주변에 금융·은행·호텔·서비스광장·사무실을 갖춘 신도시가 2014년까지 들어설 전망이었다. 하노이시 외곽 지역도 삼성전자 단지를 비롯하여 많은 공단이 건설중이고 다낭이나, 호치민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건설 붐이 한창이었다. 호치민시에도 사이공강 주변을 중심으로 총면적 409헥타에 인구 10만의 푸미흥신도시가 건설예정이었다. 칸호아성 혼트라HonTra섬에는 특급 6성급 호텔과 고급 위락시설이 들어서며 이곳이 월남 최대 관광리조트 섬으로 조성되는 중이었다.

IT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IT산업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웃돌면서 말레시아와 태국의 성장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6억3천5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월남 IT산업 규모가 2007년 말 기준 37억불로 증가했으며, IT수출도 5억6천만 달러에서 25억불로 5배 정도 성장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41%가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54%가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영 전력회사 EVN텔레콤 부사장 호엉 민 타이는 ‘월남에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와 수익모델을 도입하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소프트업체 FPT디스트리뷰션의 응엔 쾅 민 부사장도 ‘이미 200여개의 베트남 SW기업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아웃소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인력을 인도 등으로 파견하고 있다’고 하였다. 월남 정부의 국가정보화사업인 ‘e거번먼트 프로젝타’에 60~100억불을 투입하여 전자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도 2006년에 53%, 2007년에 64%나 성장하였으며 온라인 게임 등의 성공으로 400만의 고정회원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보통신부의 응엔 쭝 찡 부국장은 IT관련산업 노동력의 60% 이상이 20대 젊은이란 점이 강점이며 임금이 인도나 중국의 3분의1 수준이어서 외국투자자에게 큰 매력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한편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여파로 월남정부는 최근 석유·철강·전기 등 10개 품목의 가격을 동결시키고 지난달부터 주가도 1일 변동폭을 하노이시는 10%에서 2% 이내로, 호치민시는 5%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세계 쌀 수출 2위국으로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6월까지 미곡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월남의 새로운 풍경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모두 헬멧을 의무적으로 쓰고 다니는 것이었다. 작년 12월 오토바이 헬멧착용의무화 규정 발표후 전국 어디서나 이에 호응하는 월남인의 질서의식이 돋보였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오자이를 입은 여자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중요 식당 안내원 외에 아오자이 차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헬멧 패션바람이 불고 있어 각양각색의 헬멧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하노이시나, 호치민시 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는 인파가 붐벼 사회주의 국가에 자유시장경제의 물결이 넘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변화하는 월남 속의 한국

현지 한국 교민에 의하면 월남에는 한국의 열풍이 계속 불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장금 등 드라마의 방영으로 한류韓流의 물결이 급속히 전파되어 백화점이나 시중에 같은 물건이라도 중국제품보다 한국제품을 선호하며 가격도 비싸다 했다. 그리고 월남에 1만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한국 유학생과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국인과 월남인 2세 라이따이한來大韓의 활동 등 여러 면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2년 12월 수교당시 교역량이 불과 4억9천만 불이었으나 작년말 48억 5천만 불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월남은 한국의 세계 7위 교역국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을 제치고 월남이 해외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하여 월남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민도 10년전 고작 2천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50배가 넘어 10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교민사회의 언론 출판물도 5년전에 불과 5, 6개였는데 지금은 10여개 넘으며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체재한 호텔에는 모두 서너개의 한국TV 채널을 갖고 있어 동시간에 한국드라마와 뉴스를 시청할 수 있었다.

월남의 변화 속의 한국을 찾아보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노이공항 대합실의 삼성TV와 시내에 들어오는 하노이 최대다리 3.1㎞의 탁농교昇龍橋 교각 양편에 182개의 LG선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노이 시내에 다니는 버스와 트럭에 한국산이 많고, 휴대폰도 한국산 SK제품이 많았다. 거리 곳곳에 한국기업의 간판이 설치되어 시내 백화점 등에는 한국 상품이 즐비하였다.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1만여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각종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 붐이 대단하였다. 1996년 개관된 대우호텔에 이어 현재 경남기업에서 1조원 규모의 맘모스 복합건물을 세우고 있고, 참빛그룹에서도 2년전 하노이 근교에 54홀의 피닉스Phoenix골프장을 개장한데 이어 하노이시내 한인타운 부근 쫑하연찐 지역에 26층짜리 2동의 호텔을 신축중이었다. 호치민시에도 금호건설의 최고층 복합빌딩이 신축중이고, 다낭지역에는 대원그룹이 신도시를 건설중이었다. 한편 붕타우지역에서는 포스코의 강연판공장이, 빈딩성의 50헥타 부지에는 경방에서 섬유원료공장의 건설이, 남딩성에서는 태광실업의 20억불 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이 승인되어 건설 예정으로 있었다.

■ 한국과 월남의 역사와 문화

한국과 월남은 오랜 역사관

9면으로 계속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값 1,3000원·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우110-044
전화 02) 734-3085·732-9139 / 전송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